

군산 해역 해삼·가리비 어장 조성 호응 높다

비안도·연도 등 50억원 투자 해조류 대체 어장 활성화 추진 가리비·홍합·멍게 등 신제품 개발...연간 소득 10억원 기대

군산시가 인근 해역에 해삼서식장을 조성하고 신제품 양식어장을 개발해 어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새만금 간척 사업과 새만금 신항만 조성 등으로 해역이 축소됐지만 지속적인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신제품을 개발·육성

한다.
시는 고부가가치인 해삼서식장을 조성하고 해역에 적합한 신제품 패류 양식어장을 개발한다.
지난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국·도비 포함 50억원을 투자해 옥도면 비안도, 연도, 아청도에 연차별로 해삼 서식장을 조성하고 있다.

해삼서식장은 해삼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자연식과 인공어초 등을 시설해 해삼종묘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군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황백화 현상, 영양염류 부족 등으로 해조류에 집중된 양식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제품 패류(가리비, 홍합, 굴, 멍게 등)를 개발해 양식어장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비안도에 신제품 대상 품종을 가리비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관리도와 방축도에는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생산한 홍합 종묘를 방류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해삼종묘배양장 개발과 해삼양식단지 조성 확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 기술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 가공, 유통·판매에 이르는 윈스톱 체계를 구축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전북 서남상의, 4개 지자체에 코로나19 성금 5000만원 기탁

전북서남상공회(회장 김적우)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공인들을 위해 씨달라며 성금 5000만원을 전북 4개 지자체에 전달했다.<사진>
정읍·김제·고창·부안지역 경제단체인 전북서남상의는 정읍시에 2000만원과 김제시·고창군·부안군에 각각 1000만원씩 성금을 기탁했다.
김적우 전북서남상의 회장은 “공장 문을 닫거나 50%만 가동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예견치 못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봉착한 상공인들을 위로하고, 하루 빨리 경제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부 주관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지난 11일 오후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에서 열렸다. <정읍시 제공>

정읍 황토현서 동학농민혁명 첫 국가기념식 열려

전봉준 위패 봉안 구민사서 분향·헌화
부패 정치와 외세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지난 11일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에서 열렸다.
이날은 황토현 전승일로, 동학농민군은 1894년 5월 11일 황토현 일대에서 관군과 최초로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뒀다.
정부 주관 동학혁명 전적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은 국민 의례, 영상 메시지, 기념사, 동학

농민군 영상 시청, 유족 편지 낭송, 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이 끝난 후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전봉준과 김개남 등의 위패를 봉안한 구민사에서 분향과 헌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었다”며 “사람이 곧 하늘이고, 타인의 생명을 하늘처럼 존중하는 동학의 정신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헤쳐나가는 힘찬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보건소 관계자들이 중장년을 대상으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중장년층 건강권 확보

고창군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중·장년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일 고창군 보건소에 따르면 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헬스케어는 건강위험요인 5가지를 스마트폰 앱과 개인별 손목에 착용하는 활동량계를 통해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생체 정보를 측정해 개인별 1대 1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은 5명(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

사, 코디네이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콘텐츠를 주1~2회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주요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을 1개 이상 보유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6개월(24주) 가량 운영된다.
지난해 지속참여율 97%, 건강행태 1개 이상 개선율 55.9%,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감소율 48.5%, 서비스 만족도 86.3%의 결과를 도출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외부 전문가 참여 독립적 감사업무 수행...행정불신 없앤다

전북 첫 판사·검사·회계사 등 구성 '감사위' 내년 상반기 공식 출범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 도입을 추진한다.

감사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익산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개방형으로 위촉한다.

익산시는 조례 제정과 조직 개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감사위를 설치한 곳은 충남 아산시와 대전 서구청에 이어 세 번째다.
익산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시장 구현이 더 강조되는 만큼 감사위원회 도입은 필수 불가

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합라 장점마을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로 행정 불신을 없앨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위 도입으로 열린 감사 및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청렴도 향상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유영정 기자 yjy@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